한·중 교역액 220억달러 전망

수출 120억달러·수입 100억달러 … 무역흑자 20억달러

96년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교역총액은 수출이 95년대비 33%증가한 120억달러, 수입은 35% 늘어난 100억달러로 총 22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96년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경제개발에 필요한 수요증가, 소득향상에 따른 소비증가, 외환 보유고 증가 등으로 95년대비 33% 증가한 12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구 분	1995		1996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총교역액	16,540	41.8	22,000	33.0
수출액	9,140	47.4	12,000	31.3
수입액	7,400	35.5	10,000	35.1
수 지	1,740	-	2,000	14.9

통산부는 대중국 교역환경의 긍정적 요인으로 96년이 「9.5계획」의 원년으로 중국의 경제개발 가속화에 따른 설비투자 확충 및 대형프로젝트의 추진에 따른 플랜트 수요 증가, 그리고 WTO 가입을 위해 수입관세가 인하되고 176개품목에 대한 수입규제가 해제되는 등 시장개방 확대가 지속되는 점을 꼽았다.

또 중국이 94년부터 엔화강세에 따른 위험부담과 수입원가 상승으로 일본의존 수입구조에서 탈피해 한국·싱가폴·타이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고 인민폐의 평가절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입유발효과 기대, 국영기업의 자율적인 대외무역권 확대 등 교역여건의 개선등도 교역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산업용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조치 철폐, GATT 복귀 실패와 WTO 가입의 난관, 등소평 사망시 야기될 정치혼란과 경기정책의 변화 가능성 등은 교역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95년 한·중 교역규모는 수출이 94년대비 47.4% 증가한 91억4000만달러, 수입이 35.5% 증가한 74억달러로 총 165억4000만달러에 달해 무역수지 흑자가 94년에 비해 배이상 늘어난 17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부문의 경우 95년중 대중국 투자가 허가기준으로 1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92년8월 양국간 국교수립 이후 95년말까지 총 2749건, 27억4160만달러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6/4/1>